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서울도서전과 서울국제도서전



최성일*

도서전시회(圖書展示會, 이하 '도서전')는 책을 진열해 보여주는 전시회의 성격이 있지만 '책 장터(book fair)'를 뜻하기도 한다. '도서전'에서는 주로 국제적인 저작권이 거래

된다. 백과사전의 도서전시회 항목은 이렇게 시작한다. "다수의 출판사가 제각기 출판물을 가지고 모여서 주로 그 판매권·출판권 등의 매매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는 도서전시회는 국내에서 개최되어 일반 고객을 상대로 도서를 판매하거나 자사(自社)의 선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나 특수 서적을 전시하는 도서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인다. "특히 세계의 약 20개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 도서전시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이다."

'도서전'의 사전적 정의

또한 백과사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도서전시회에서도 고액으로 거래되고 화제도 집중된다"고 언급한다. "유명 작가의 신작(新作)은 전시회 초기 단계에서 매매되며, 인기 작품에는 격렬한 경쟁이 따른다." 예컨대 프로 권투 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무하마드 알리의 자서전이 미국의 랜덤하우스사(社)에서 경매되었을 때, 독일

출판사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막판까지 저작권 쟁탈전을 펼친 두 출판사가 모(母)회사와 자(子)회사로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개별 출판사별로 국제 도서전에 참가하고 있다. 그 전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출판사들이 개별적으로 국제 도서전에 참가하면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나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같은 이름난 도서전의 저작권 부스에는 우리 출판인들로 넘쳐 난다는 얘기가 있어 왔다.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매년 4월에 열리는 국제 아동도서전은 어느덧 40개 성상의 연륜을 쌓았고, 단일 분야 도서전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데 지난 4월 13일에서 16일까지 개최된 2005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빈국 초청과 관련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도서전 기간 동안,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2008년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선정되었다는 '출협'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볼로냐 도서전 조직위 엘레나 파솔리 위원장이 이번 도서전에 참가한 '출협' 인사에게 2008년의 주빈국은 덴마크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아시아권 나라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이 볼로냐 아동상 라가치상 수상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을 계기로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조직위에 우리나라의 주빈국 초대를 타진했고, 구두로 그 가능성이 확인했다는 것이 '출협'의 해명이다. 공식 문건에 의한 계약 체결이 아니었던 만큼 볼로냐 도서전 조직위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한다. 한국을 2009년 주빈국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조직위와 합의된 본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인터넷과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로 해외 저작권 도입에서 국제도서전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는 시적이 없지 않으나, 우리 출판 관계자는 지금도 열심히 해외 도서전을 찾는다. 재정적 여력이 있는 출판사의 경우, 자사 직원에게 해외 도서전 파견을 지원하는 것은 복리후생, 곧 보너스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2005 서울국제도서전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20여 개 나라가 참가한 서울국제도서전이 시작됐고, 이후 해마다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렸다. 제11회 서울국제도서전은 2005년 6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 1층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펼쳐졌다. 출판계 일각에서는 서울국제도서전이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에서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전망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박명호 '출협' 회장은 도서전 카탈로그에 실린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54년 개최되기 시작하여 올해로 44회를 맞이하고, 국제 도서전으로 격상된지 11주년이 되는 서울국제도서전은 그동안 한국 출판의 세계화, 출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 국민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라는 목표 아래 현재 세계 27개 주요 도서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명성과 위상을 크게 높여가고 있으며 발전하는 한국 출판문화의 저력을 확인하고 세계 각국의 출판수

준을 접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 될 것"임을 천명했다.

2005 서울국제도서전에는 192개사가 참여한 국내관을 필두로 23개국에서 500여개사가 참가했고, 15종류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부대행사로는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안데르센의 작품과 일러스트 원화를 전시한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 특별전', 빛바랜 육필원고를 통해 지난 시대 작가들의 창작과정을 엿본 '유명 작가 육필 원고전', 금속활자의 제작과정을 알려주면서 고인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직지(直指) 홍보 특별전시' 등이 꼽힌다.

몇 년 전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들의 부스를 분리하고부터는 도서전시장의 산만함이 적잖이 해소되었다. 물론 어린이책 출판사의 부스가 들어찬 코엑스의 인도양홀은 시끌벅적했다. 도서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년에 비해 한산한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는 출판사의 도서목록까지 수거하느라 도서전시장을 나설 즈음이면, 가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정도였으나 요즘은 알짜자료만 취사선택한다.

자료 수집의 측면에서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가장 큰 아쉬움은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 특별전'에 이리다 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별전을 안내하는 분에게 팸플릿 제작 여부를 물으니, 만들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2005 서울국제도서전과 함께 하는 '인문사회과학 도서 450선' 목록집 『지상의 별처럼 빛나는 반딧불의 풀밭』(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으로 아쉬움을 달랜다.

필자의 개인적인 도서전 참여도도 지난해보다 낮았다. 작년에는 2004 서울국제도서전 세미나에도 참여했다. 당연히 청중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펼친 도시 세 곳의 관계자들이 운동의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발전 과제를 모색한 세미나는 아주 유익한 자리였다. 그런데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올해 도서전의 전문인 세미나 중에는 필자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가 없었다.

‘저자와 사진 한 장’ 또한 “단순히 사인회나 강연회를 하는 정도를 넘어 저자와 독자와의 적극적인 만남을 추진하는 행사”로, “유명 저자뿐만 아니라 문학, 건강, 예술, 노년, 일러스트, 사진 등 여러 분야의 저자를 초청하는 축제적 행사”를 지향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지만, 내 발길을 붙들진 못했다. 나는 ‘신인 복디자인 공모전’을 눈여겨보았고, ‘제2회 서울 세계 북아트 페어’ 전시도록을 구입했다.

‘90 서울도서전

필자와 도서전의 첫 만남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1990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9회 서울 도서전시회가 내가 처음 접한 도서전이다. 도서전 안내 책자인 『90 서울도서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에 실려 있는 당시 ‘출협’의 권병일 회장의 개회사를 보면, 도서전 개최에 얼마간의 공백이 있었던 모양이다.

“‘독서하는 사회’와 ‘독자 사운’의 뜻을 담아 전국도서전시회란 이름으로 해마다 마련해온 이 도서전시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격조 높은 책의 페스티벌로서의 명성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계나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날로 확대되는 전시규모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중단되었었기 때문에 이 책잔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열망의 소리가 점점 강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개회사는 도서전의 “명칭과 전시방법 및 운영형태 등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이란 주제로” 20만 종의 책과 잡지를 전시하고, “독자로 하여금 뉴테크놀로지 시대의 출판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첨단 전자출

판시스템을 선보”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필자가 ‘90 서울도서전을 찾은 주된 목적은 리영희 선생이 나오는 ‘저자와의 대화마당’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나는 1990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에 도서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이 날은 내가 군에서 제대한지 열흘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리영희 선생의 저자와의 대화는 오후 4시에서 6시까지로 잡혀 있었다.

그 시절만 해도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힌 인물이 관 주도의 행사에 등장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대화마당이 취소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했다. 다행히 리영희 선생은 약속된 시간에 나타났다. 청중은 서른 명 남짓이었지만 대화마당의 열기는 뜨거웠다.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사회에 방금 복귀한 제대 군인에게는 더욱.

강연과 일문일답이 끝나고 일단의 청중이 저자 서명을 받기 위해 우르르 몰려 나갔다. 아뵘사! 내 수중에는 리영희 선생의 『自由人, 자유인』(범우사, 1990)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를 기준으로 이 책을 읽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현장 판매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면 몰라도, 현장 구매를 해서라도 저자 서명을 받았을 것이기에, 이 책을 미리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自由人, 자유인』을 집에 두고 왔을까? 지금 내 앞에 있는 『自由人, 자유인』은 1990년 9월 10일 발행된 초판 3쇄다. 간지에 이 책을 구입한 서점과 날짜를 적어 놨는데 9월 12일 책을 샀다. 문제는 어느 해의 9월 12일이나는 것이다. 나는 물론 연도도 포기했다. 하지만 이게 무지 헛갈린다. 서기나 단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이여 마음놓으시라. 북한의 주체 연호나 일본 왕의 연간을 사용하진 않았으니.

나는 중뿔나게 분단 연호를 썼다. 분단 46년 9월 12일. 분단 연호는 1945년이 원년이므로

올해(2005년)는 분단 61년이다. 그렇다면 분단 46년은 1990년이다. 이제 문제가 풀렸을까? 그렇지 않다. 셈을 잘못하면, 분단 46년은 1991년 일 수도 있다. 이 책을 1990년에 구입했다면, 말년휴가를 나와서 산 것이다. 나는 휴가 때마다 친지들이 준 돈으로 책을 사서 읽곤 했다.

이밖에 '90 서울도서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인기 저자가 추천하는 자신의 책 한 권, 북한 간행물전, 중국에서 발행한 우리말 출판물전, 한국 교과서 역사전, 엄마가 쓰고 그린 생활동화 그림책 원화전, 장애인을 위한 도서전시대 등이 있었다.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세계 최대의 도서전', '출판 올림픽', '문화 올림픽' 따위의 수식어가 아깝지 않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도서전이다. 이 도서전에는 해마다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출판사와 출판 관련 업체 및 단체 6,700여 곳이 참가하며, 34만 권의 책과 8만 권의 신간이 전시된다. 관람객은 수십 만 명을 헤아리며 도서전을 취재하는 기자의 숫자만 해도 1만 2천 명에 이른다.

올해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예년보다 더 우리의 이목을 끄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매년 한 나라나 특정 문화권을 주빈국으로 정해 특별 전시와 각종 문화 행사를 한다.

한국이 펼쳐 보일 주빈국 행사의 개요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2005' 웹사이트 (www.enterkorea.net)에서 접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 과거와 전통, 첨단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가장 오래된 인쇄물과 금속활자본을 갖고 있는 유서 깊은 문화국인 동시에 최첨단

IT 기술을 보유한 첨단과학강국이기도" 하다는 전제 아래, "주빈국 행사는 문화와 과학기술이 서로 관통하고 상생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청사진을 펼친다. 아울러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관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출판문화를 통하여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고 덧붙인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빈국관에서는 40여 개의 행사가 펼쳐진다. 아고라 광장 행사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8개의 공연과 4개의 특별 행사를 통해 주빈국 행사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3개의 학술 행사는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도모하는 장이 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시내 이곳 저곳의 전시장에서 도서전이 끝나고도 한두 달 더 이어질 6개의 전시 행사도 주목된다. 이들 전시는 한국의 옛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조망하게 하는데, 우리의 과거를 보여 주는 유물전 3개와 약동하는 한국의 현재와 나아갈 미래를 탐색하는 현대 미술과 사진 전시회 3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만남, 직지 & 구텐베르크'전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술인 직지를 중심으로 한국 옛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자리다. '영혼의 여정- 조선시대 불교회화전'과 '백자의 얼굴- 조선시대 도자기'전은 조선시대 불교회화와 백자를 통해 과거 한국인의 삶을 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시대 한국인의 삶은 '생의 평행선', '정치와 미학-한국의 민중미술', 'Fast Forward' 등 3개의 전시를 통해 드러낼 예정이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주빈국으로 초대된 러시아와 아랍권의 주빈국관은 전시물이 불품없이 관람객의 외면을 받았다고 한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주빈국 행사는 관람객의 호응과 함께 알찬 성과가 있길 바란다. 